

어린이(청소년) 공원 지킴이 운영

□ 제안배경

- 남산산성을 제외한 도립공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임
- 미국 국립공원관리청(National Park Service)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니어레인저프로그램은 어린이 뿐 아니라 성인 방문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음. 이를 도립공원에 접목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인지도를 높여 도립공원을 활성화할 필요 있음

□ 시책 제안

- 도립공원에 어린이·청소년 공원 지킴이(가칭) 프로그램 도입하여 공원 방문시 지킴이 활동을 한 어린이·청소년에게 기념 배지(badge)* 혹은 패치(patch) 증정
 - * 참여 어린이들은 미국 국립공원별 주니어레인저 배지를 수집하기도 함
- 공원이킴이 활동 사례
 - 소책자(워크북): 공원 및 자연보호 기본지식, 퍼즐, 글짓기, 그림그리기 등
 - 트레일 등 공원체험, 공원프로그램 참여, 쓰레기 줍기 등 자연보호 활동
 - 선서 및 배지 수여: 자연을 보호하고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고 공원이킴이 배지 수여

□ 추진 계획 (도정 접목 계획)

- 프로그램 도입 타당성 검토
 - 대상: 3개 도립공원(남한산성, 연인산, 수리산도립공원)
- 어린이·청소년 공원이킴이를 위한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시행

□ 기대 효과

- 도립공원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
- 체험과 학습을 병행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자연보호 및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함

공공기관 이용 올인원 카드 개발

□ 제안배경

-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지만, 정작 놀이와 여가는 인터넷게임과 TV시청 정도로 제한적임
 - 청소년들이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을 체력단련, 스포츠, 문화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접근기회를 통합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음

□ 시책제안

- 현재는 학생증, 시립·도립·국립도서관카드 등을 모두 따로 발급받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
- 학생증과 공공기관이용카드를 통합한 올인원 카드를 통해 하나의 카드로 학교도서관은 물론, 사업참여에 동의하는 모든 공공기관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
- 또한 박물관, 체육시설, 문화공간 등은 비수기를 이용한 무료입장의 기회 등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한다면 청소년들이 좀더 쉽게 다채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임

□ 추진계획

- 사업계획수립 및 참여기관 수요조사
- 운영시스템개발 및 시행

□ 기대효과

- 청소년들이 여가 및 놀이문화에서 소외되지 않고, 정신적·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기회 제공

◇ 마이텐버카드 운영 사례

○ 도입배경

- 이 제도는 2011년 매기 트라우트(Maggie Trout)라는 12세 소녀가 도서관카드를 잃어버려 책을 대출할 수 없게 되자 하나의 카드로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한 시의회 의원에게 제안하여 현실화됨

○ 사업내용

- 도서관과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학생증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
- 텐버의 26개 레크리에이션센터와 29개 수영장을 신청서만 제출하면 무료로 입장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됨

※ 이용가능 프로그램: 수영, 게임, 실내게임(구기 종목 등), 청소년체력단련 교실, 춤, 미술 등(15년 텐버 동물원 10회 무료입장 등 문화예술기관 신규 참여 예정임)

- 학생증 뒷면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이용현황 및 행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

* 마이텐버카드의 보급과 홍보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후원

○ 이용대상

- 5세부터 18세까지의 텐버시내 공립학교 재학생 및 텐버 거주민

* 텐버시내 공립학교 학생(92,000명), 타지역 학생으로 텐버 거주민(13,000명)

○ 예 산 : 매년 약 500,000달러

○ 가입현황 : 전체 105,000명의 아동·청소년 중 57,000 여명 가입

119 재난알림 서비스

□ 제안배경

- 사건사고와 재난이 빈번한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예방과 대처방안을 일원화하여 알릴 수 있는 시스템 필요
- 가장 빠르게 사건사고와 재난상황을 접수하는 119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경우 주민들의 안전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임

□ 시책제안

-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재난알림 서비스 개발
 -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위험영향 지역을 판단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서비스 제공
 - 지리정보시스템과 유선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재난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 파악되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메시지로 재난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,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시스템 개발

□ 추진계획

- 119 재난알림 시스템 개발 타당성 검토, 시스템 개발시행
- 주민 홍보 및 핸드폰, 인터넷폰, 팩스번호, 이메일주소, 소셜미디어 등 사용자 등록을 통해 서비스 확대 추진

□ 기대효과

- 신속한 재난재해알림, 행동지침 전파로 안전한 경기도 실현

◇ 911 재난알림서비스* (Emergency Notification Service, ENS) 사례

* 911 재난알림서비스: Reverse 911으로도 알려져 있음

- 911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재난 영향 지역 내 모든 유선전화를 탐색하고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재난에 대한 안내 및 경고를 해주는 서비스로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음
 - 지리정보시스템과 유선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재난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 파악되면 ENS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메시지로 재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, 행동지침을 안내해 줌
- 기존 유선전화의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, 핸드폰,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서비스 확대
 - 기존서비스는 911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모든 유선전화에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인데 반해, 확대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가 자신의 핸드폰 번호, 인터넷폰 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, 또는 또다른 유선전화번호 등을 EN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함
 -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난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주민들에게 알림서비스 도달 확률을 높일수 있음
- 실제 운영 사례
 - 자연 재해는 물론, 인재나 각종 범죄상황에서도 911 ENS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위험을 주지시키고, 안전을 지킨 사례를 미국 전역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음
 - 2010 보스톤 수도관 파열로 인한 수돗물 오염시 911 재난알림서비스를 통해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물을 반드시 끓여 먹을 것을 당부
 - 2012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자택에 피신하여 폭파 위협을 했을 당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알리는 경고서비스 실행
 - 2013 보스톤 마라톤 폭파 용의자와 추적전을 벌였던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집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ENS를 통해서 알림